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9
SSAF

www.facebook.com/ssaf.official
www.ssaf.or.kr

서울거리예술축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축제 프로그램 소개자료를 볼 수 있도록 깨끗이 사용하신 후 반납 부탁드립니다.

재사용 책자는 소독 후 제공됩니다.

안전관리책임자_김영규 02-758-2041

I SEUL U

서울 거리예술 축제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9
SSAF

2019.
10.3 Thu - 10.6 Sun

서울광장
청계광장
덕수궁길
무교로 등



틈,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

시간의 틈, 흐르는 시간과 고여 있는 기억

공간의 틈, 움직이는 도시와 낯선 여기

사람의 틈, 갈라진 사이와 틀어진 관계

'틈'은 서울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가리키며 멀어져 가는 시간의 기억과 지금의 사이, 그리고 다가설 수 없는 사람 간의 간격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는 시민에게 실 '틈'을 제공하고 숨 돌릴 '틈'이 되어주며 축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작은 '틈'을 제안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는 작은 '틈'의 공간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다. 단순한 물리적 확장의 개념을 넘어 싹틔줄같이 연결된 도시의 '틈' 사이사이를 드러내기 위한 접근을 한다. 때로는 순례자처럼, 때로는 산책하듯이 도심을 걸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서울의 가을을 만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바라보며 의미를 부여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는 거리예술 단체들의 다양한 제인을 수용하고 거리예술의 새로운 경향과 실험적 모색을 반영한다. 또한 여러 형태의 예술이 공공 공간과 특정한 도심 공간에서 축제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한다. 앞으로 이런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는 해외 작품이 서울의 공간과 시민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거리예술가의 역할을 확장한다. 또한 시민이 작품에 관여하고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며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몸으로 공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더불어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는 여러 축제 관계자들과 공연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트는' 특별한 장을 준비한다. 이는 국내 공연자들의 해외 및 국내 유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시장을 확대해 국내 거리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좁은 골목길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거리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세상의 모든 틈을 지나 마침내 환한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CONTENTS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일정표
SCHEDULE

02

12

공연
PERFORMANCE PROGRAM

협력
COOPERATION PROGRAM

80

102

놀이
PLAY PROGRAM



SSAF의 시선
축제가 주목하는 지금은 다른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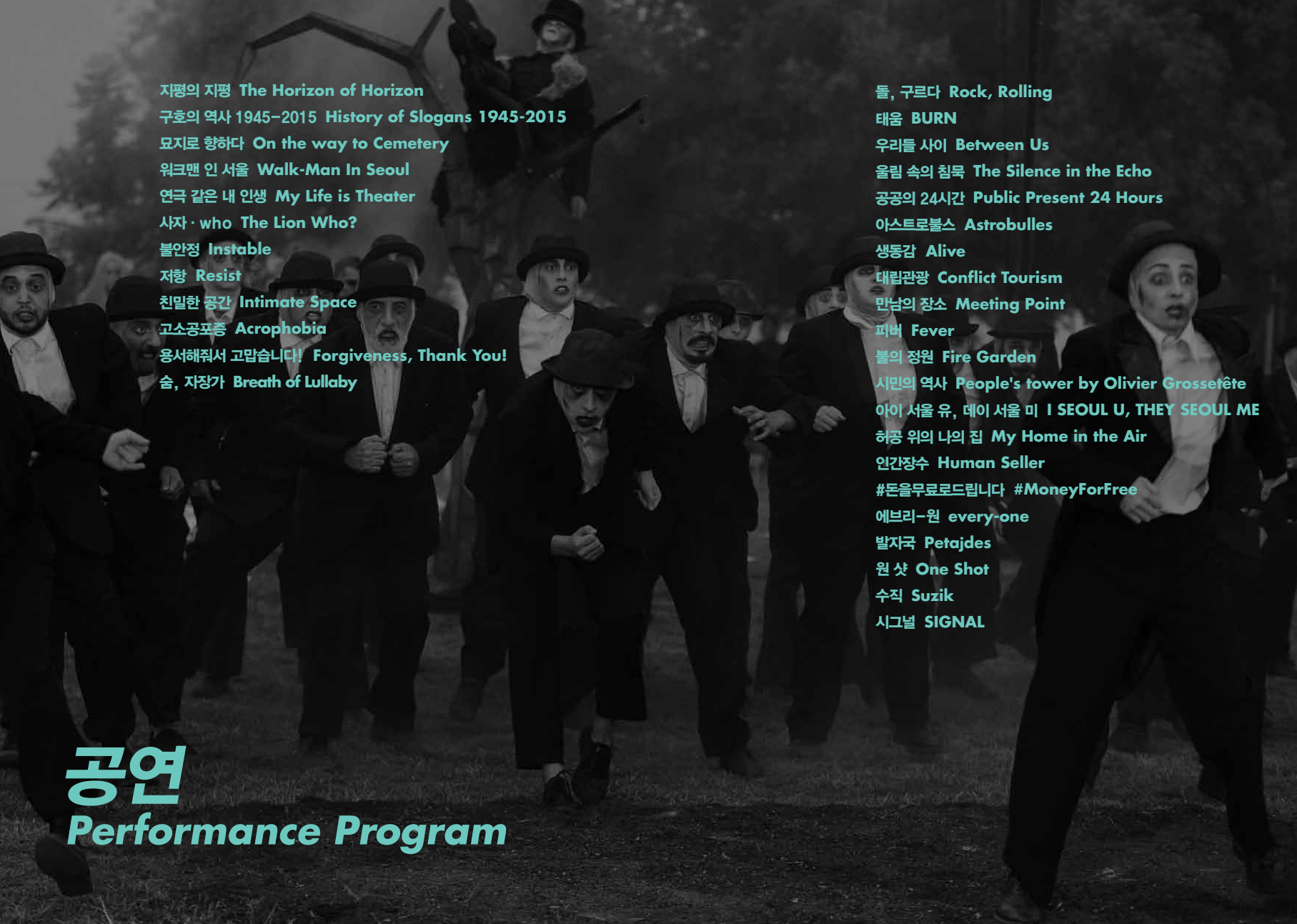
서커스 카바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카바레)에서 선보이는 서커스 작품



언어
한국어 대사 포함된 공연

* 공연 소개 및 표시 순서는 단체명 가나다 순입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Seoul Street Arts Festival



지평의 지평 The Horizon of Horizon
구호의 역사 1945-2015 History of Slogans 1945-2015
묘지로 향하다 On the way to Cemetery
워크맨 인 서울 Walk-Man In Seoul
연극 같은 내 인생 My Life is Theater
사자·who The Lion Who?
불안정 Instable
저항 Resist
친밀한 공간 Intimate Space
고소공포증 Acrophobia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Forgiveness, Thank You!
숨, 자장가 Breath of Lullaby

들, 구르다 Rock, Rolling
태움 BURN
우리들 사이 Between Us
울림 속의 침묵 The Silence in the Echo
공공의 24시간 Public Present 24 Hours
아스트로볼스 Astrobullles
생동감 Alive
대립관광 Conflict Tourism
만남의 장소 Meeting Point
피버 Fever
불의 정원 Fire Garden
시민의 역사 People's tower by Olivier Grossetête
아이 서울 유, 데이 서울 미 I SEOUL U, THEY SEOUL ME
허공 위의 나의 집 My Home in the Air
인간장수 Human Seller
#돈을무료로드립니다 #MoneyForFree
에브리-원 every-one
발자국 Petajdes
원 샷 One Shot
수직 Suzik
시그널 SIGNAL

공연
Performance Program

지평의 지평^①

The Horizon of Horizon

14

퍼포먼스

지평 너머의 지평

2017년 <사이> 작품을 모티브로 발전된 퍼포먼스다. 예술가의 질문인 '지금, 당신에게 먼 것은 무엇입니까?' 에 관객은 답하고 이는 하나의 몸을 통해 새겨진다. 답이 새겨진 몸을 통해 관객은 다른 이들의 서로 다른 '호라이즌'과 교차, 공유된다.

SSAF's NOTE

예술가의 질문에 관객이 답을 채우며 완성되는 퍼포먼스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을 이상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술가의 몸을 통해 상상하고자 한다. 잠시 멈춰, 오늘 우리에게 멀리 있는 모든 것들과 마주, 공유해본다.



15

10/4 14:00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10/5 14:30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180분

공모 | 한국

국지인

안무가인 '국지인'은 프랑스 무용단 엑스니힐로(Compagnie Ex-Nihilo)에서 무용수로 활동 중이다. 일상적인 것들에서 '나-개인'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공통 분모의 감각들을 찾는다.

STAFF & CAST

작/연출/출연 국지인
출연 송영민



거리극/이동형

탄생에서 죽음까지 도시를 여행하는 이동형 공연

'고도를 기다리며'의 저자 Samuel Beckett의 세계관과 칠레 극작가 Juan Radrigán의 시 '베케트와 고도(Beckett and Godot)'에서 영감을 얻은 도시 여행이다. 출산부터 죽음까지, 최후의 날을 향한 여정이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서커스와 거리극, 춤 등 다양한 장르와 다수의 배우가 거리 곳곳을 채운다.

SSAF's NOTE

공연을 따라 걷다보면 공중그네, 에어리얼 실크 등 컨템포러리 서커스와 강렬한 라이브 연주가 초현실적이며 압도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는 한국의 배우들이 함께한다.



초청 | 칠레+프랑스

극단 실렌시오

198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Mauricio Celedon이 설립한 '극단 실렌시오'는 언어를 넘어서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보편적 표현 방식을 추구한다. 감정, 제스처, 서커스와 음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극적인 언어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활동한다.

STAFF & CAST

General/Artistic Direction _ Mauricio Celedón | **Musical Direction** _ Jorge Martínez Flores | **Musical Composition** _ Jorge Martínez Flores, La Reine Mab | **Costumes Creation** _ Claudia Verdejo | **Costumes Students** _ Violaine Sala, Marie-Lou Monnot | **Scenography** _ Mauricio Celedon, Panxo Jimenez, Marcelo Pizarro | **Chief Onstructor** _ Panxo Jimenez | **Constructors** _ Clément Dreyfus, Panxo Jimenez, Stéphane Najma | **Scenography Assistant** _ Christopher Lange | **Performers(Actors/Circassians)** _ Belen Celedon Moraga, Guillermina Celedon, Luigi de Maglie, Francesca Domenichini, Luis Hormazabal, Panxo Jimenez, Claire Joinet, Julie Jourdes, Dmitri Rekatshovski, Laure Sinic, Antonia Vasilakou, Claudia Verdejo, Fleur Jansen, Gijis van den Arend | **Musicians** _ Jean-Paul Beirieu, Julie Bierey, Mathieu Duchier, Samuel Monce | **Technical Direction/Pyrotechnics** _ Stéphane Najma | **Aerials** _ Michel Arias | **Sound** _ Francisco Araya | **Technicians** _ Michel Arias, Clément Dreyfus | **Coordination-Production** _ Fanny Enjalbert-Mathilde Daviot | **Gestion-Administration** _ Marie Graindorge-Art Rythm Ethic

한국배우(Korean Performers) _ 대전대학교 연극영화학부(Daejin University students) - 강지연(Jiyeon Kang), 김유미(Yumi Kim), 김준형(Junhyeong Kim), 노해성(Haesung Noh), 박서현(Seohyun Park), 박유진(Yujin Park), 박지영(Jiyoung Park), 백상민(Sangmin Baek), 서상우(Sangwoo Seo), 송주형(Juhyeong Song), 양민을(Mideum Yang), 오현종(Hyunjong Oh), 윤민주(Minju Yun), 이세희(Sehee Lee), 이재웅(Jaewoong Lee), 이종민(Jongmin Lee), 이혜성(Haesung Lee), 전영진(Youngjin Jeon), 조예슬(Yeseul Jo), 최원주(Wonju Choi), 하태민(Taein Ha), 한혜주(Hyeju Han), 허상진(Sangjin Heo), 황기민(Gain Hwang), 황윤지(Yunji Hwang)
연극연구소 영량거울(The Pure Mirror) - 권석린(Sucteen Kwon), 공하성(Hasung Kong), 김춘식(Chunsk Kim), 임석현(Seokhyun Yim), 허진(Jin Heo)



Supported by _ Regional Council of Ile-de-France «Support to creation for Street theatre - 2016», French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 General Direction of Artistic Creation / DGCA - «Support to street theatre residence and production - 2017», DRAC Ile-de-France, ADAMI, SPEDIDAM, French Institute in Algeria, Chilean National Council for Culture and Arts - CNCA, Chilean Embassy in Algeria.

Residences/Coproductions _ L'Atelier 231-CNAREP de Sotteville-lès-Rouen, Le Parapluie - Centre International de Création Artistique d'Aurillac, Les Ateliers Frappaz - CNAREP de Villeurbanne, Le Moulin Fondu - CNAREP de Noisy-le-Sec.

Residences _ La Parole Errante Montreuil, 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âtre de Bejaia in Algeria, Temporary artistic venues SNCF - Paris 18e.

Production _ Teatro del Silencio

보이지 않는 도시로 내적 여행을 위한 여정

프랑스에서 최초로 헤드폰을 극에 이용한 '극단 아르펑터'의 상상개념이 반영된 작품으로 2001년 초연됐다. 한국에서는 서울 회현동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됐다. 약 한 시간 동안 산책하며 도시를 보고, 듣는다.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존재하며 관객은 스스로 내면의 여행을 떠난다.

SSAF's NOTE

헤드폰을 착용하고 홀로 걸으며 경험하는 1인 체험 공연이다. 배우가 들려주는 음성 과 눈앞의 도시 풍경 사이에서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는 낯선 경험을 선사한다.



극단 아르펑터

다수의 극장용 연극공연을 제작했고 여러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서커스, 무용, 음악 등)과 협업을 했다. 1998년부터는 <보이지 않는 도시>를 주제로 공공공간에서의 작업을 전개해왔다.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도시란 그저 범위나 틀,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공연의 주제로서 존재한다. 사람들과 도시 사이에 역어진 비밀스러운 고리들을 들어내면 등장하는 사적인 것들과 다양한 상상들이 이 모든 작업을 이끈다.

STAFF & CAST

Concept/Director_ Hervé Lelardoux

Text_ Hervé Lelardoux, 국지인(Jiin Gook) | Performer_ 국지인(Jiin Gook), 이지형(Jeehyung Lee)

Sound Technology_ 김형준(Hyeongjun Kim) | Guide_ 국지수(Jisoo Gook)

Supported by





나는 육지에 사는 물고기가 아닐까?

나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며 단단한 '무엇'들을 겹겹으로 두른, 우리들의 속살에 관해 고찰한다.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처럼 편안하고 신선한 사색의 거리연극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마주하고 치유하며 주목하는 작품이다. 드라마 속의 인물을 거리에서 찾고 발견하고 주목하면서 도리어 관객 자신의 내밀한 사정에 심취하게 된다.

SSAF's NOTE

내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마트 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살펴본다. 채팅방을 통해 전달되는 음악, 대사와 거리 속 장면들이 겹쳐지며 이야기가 완성된다.



금설복합예술소

양식적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화법과 미술적 개성을 중시하는 스타일, 완성도 있는 오브제 운동을 특징으로 1997년부터 순수창작만을 이어왔다. 2008년 정식 창단해 1인, 2인 미만의 소규모 작품들로 국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주요작으로는 <이불꽃> <공룡엄마> <크락션> 등이 있다.

STAFF & CAST

작/연출 김신기

출연 김신기, 김지윤, 김현아, 권태환, 이정국, 이윤주, 김해경 | 기획 이은경



사자 · who^⑥

The Lion Who?

24

거리무용

북청사자놀음의 신 · 구대면

용맹함의 상징이자 샛된 것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자춤. 민초들에게 풍자와 해학으로 즐거움과 해소감을 주었던 사자춤이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나 지금이나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불평등과 부조리는 윤회하듯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담은 <사자 · Who>는 북청사자놀음의 텍스트를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한 현시대를 향한 일갈이다.

SSAF's NOTE

현대무용과 사자춤이 만났다. 갑을 관계가 널리 퍼진 현대 사회에서 관객들에게 사자울음 같은 통쾌함을 선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를 꿈꾸게 한다.



25

10/5 16:00, 20:30 ©서울신문사 앞
10/6 14:00 A청계광장
30분



공모 | 한국

댄스프로젝트 에게로

2014년 창단되어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협업을 통해 내면적 고찰과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 활동을 위해 기동성 있는 극장과 야외공연 레퍼토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 단체명 '에게로'는 어떤 행위의 도달점으로 '에게'와 '로'가 결합된 말이며 언어 이전의 느낌을 행위자에게서 관전자에게로 전달하고자 한다. 협력단체인 '성남삿대'는 1996년 성남지역에서 만들어진 전통예술공연 단체로 전통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연 예술판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다.

STAFF & CAST

안무/연출 | 이용진 | 악사 | 김진형, 서정훈, 이호용, 이하나 | 사자 | 정병인, 노병유
무용 | 강건, 이용진, 이인우 | 스태프 | 김도영



서커스

초청 | 프랑스

불안정 속, 균형을 찾아나가는 서커스

한 남자가 아슬아슬한 장면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기울어진 봉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얇은 와이어에 매달려 불안정하기만 하다. 이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곡예사는 자신만의 안정적인 지점을 찾아 스스로가 고정점이 되어야 한다.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불안정함을 투영하려는 것이 아닌 불안정한 그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둔다.

SSAF's NOTE

차이니스 폴을 고정시키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기울어진 사람이라는 뜻의 '레 즘 평쇄'는 기울어진 폴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을 일으키려 노력한다.



레 즘 평쇄

글쓰는 작가이며 배우이자 감독인 동시에 사진작가이기도 한 Christophe Huysman이 1995년에 설립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대의 고민과 삶의 방향에 대해 말하는 울림통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STAFF & CAST

Original Idea/Interpretation_ Nicolas Fraiseau | **Director**_ Christophe Huysman | **Artistic Collaborators**_ Mads Rosebeck, Maël Tebibi | **Light Designer**_ Eric Fassa | **Sound Designer**_ Robert Benz | **Set Designer**_ Nicolas Fraiseau, Christophe Huysman, Sylvain Fertard | **Costumes**_ Mélinda Mouslim | **Set builders**_ Sylvain Fertard et Michel Tardif | **Technical manager**_ Robert Benz | **Production**_ Christine Tiana | **Assistant tour manager**_ Manon Cardineau | **Production**_ Les Hommes penchés

Supported by_ DRAC Ile-de-France, Région Ile-de-France, SACD/dispositif Processus cirque



Writing/Production Supported by_ Association Beaumarchais SACD

Support/Creative Residency_ Espace Périphérique/Mairie de Paris-Parc de la Villette, Latitude 50 - Pôle Arts du cirque et de la rue, Les Arènes de Nanterre - Lieu de fabrique, Mimulus, Cirk'Eole, Académie Fratellini



서커스

초청 | 프랑스

수평과 수직에 균열을 내어 보다 많은 저항에 대응하는 줄타기

불안정한 와이어, 라이브 음악 그리고 숙련된 곡예사. 배우는 높은 줄 위를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줄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누구도 떨어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터무니없는 투쟁 속에서 나름의 저항을 한다.

SSAF's NOTE

강한 라이브 음악과 컨템포러리 서커스가 서울광장을 가득 채운다. 공중 위 줄(타이트 와이어)에 설치된 다양한 장치는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과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작품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레 피 뒤 르나르 팔

Johanne Humblet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공중곡예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찾아내고 그 한계를 밀고 나아가는 예술적 접근 방식을 갖는다.

STAFF & CAST

Collective Creation under the Artistic Direction/Filambule_ Johanne Humblet | **Collaboration in the staging**_ Yann Ecauvre | **Artistic collaboration**_ Maxime Bourdon | **Music creation**_ Deadwood, Djeyla Roz | **Singer**_ Violette Legrand or Johann Candoré or Djeyla Roz | **General, Stage Management/Construction**_ Steve Duprez | **Sound Control**_ Jérémy Manche or Johan Caballé or Léa Lachat | **Lighting Design**_ David Baudenon | **Costumes**_ Solenne Capmas | **Unstable Wire Construction**_ Sud Side | **Administration/production**_ Bérénice Riollet

Creation assistance_ Ministère de la Culture-DGCA, DRAC du Grand-Est, Région Grand-Est, Département de la Marne
Co-production/reception in residence_ Bonlieu Scène Nationale Annecy, Le PALC - Furies, Pôle National des Arts du Cirque et de la Rue en Préfiguration, Cirque Jules Verne, Pôle National des Arts du Cirque et de la Rue d'Amiens, CIRCA, Pôle National Cirque Auch, La Verrerie, Pôle National Cirque Occitanie

Co-production, Pre-purchases_ Éclat(s) de rue-ville de Caen, Les Halles de Schaerbeek-Bruxelles
Support/welcom in residence_ La Cascade, Pôle National Cirque Ardèche-Auvergne-Rhône-Alpes, Cirk'éol, Académie Fratellini
Supported by_ Scènes de rue de Mulhouse



보이지 않던 장면과 사람들에 대한 호텔로의 초대장

관객을 호텔로 초대해 공공적인 것과 사적 행동에 대한 질문들을 던진다. 무용수들은 통찰력 있고 감동적이며 매력적인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하고 관객은 부드럽지만 도발적이며 긴장감 있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무용수들은 호텔 곳곳에서 가시성, 권위, 자기 가치 그리고 관계라는 도전적인 주제를 표현해내며 관객들이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SSAF's NOTE

초대된 관객들은 간단한 안내와 함께 호텔에 입장하고 무용수들을 통해 공간을 탐색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내는 움직임, 무용은 유쾌하면서도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한국의 장애인 무용수가 함께 출연해 그 의미를 더한다.



©Shane Reid

레스트레스 댄스 씨어터

예술감독 Michelle Ryan이 이끄는 단체로 실제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제약도 없는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인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합동하여 환상적이고 포용적인 결과물을 창작해 왔으며 예상을 벗어난 창작물로 호주 무용단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TAFF & CAST

Director_ Michelle Ryan | **Dancer_** Darcy Carpenter, Jianna Georgiou, Abby Hampton, Michael Hodyl, Alexis Luke, Michael Noble, Andrew Pandos, Anastasia Retallack, 조윤서(Yunseo Jo), 문승현(Seunghyun Moon), 김민수(Minsoo Kim), 홍영훈(Younghoon Hong) | **Actor_** Ashton Malcolm | **Artistic Manager_** Roz Hervey | **Technical Manager_** Hamish McAdam | **Stage Manager_** Françoise Piron | **Assistant Stage Manager_** Jo Curren, Emma Stokes

Supported by



©Shane Reid

서커스

당신은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공중그네를 탈 수 있나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서로 도우며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공중그네 공연으로 그네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신은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공중그네를 탈 수 있나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가요? 공중그네를 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찾아봐요!”

SSAF's NOTE

곡예사에게 치명적인 두려움, 고소공포증을 서로 도우며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웠을 두려움을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극복해낸 두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은 공중그네 공연이다.



공모 | 독일

리브 & 토비

독일의 공중그네 듀오 리브와 토비는 2014년 네덜란드의 코다츠 로테르담을 졸업했다. 졸업 이후 함께 전 세계를 돌며 <고소공포증>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STAFF & CAST

Performer_ Liv Berit Knoche, Tobias Jakob Willasch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⑪

Forgiveness, Thank You!

34

서커스

자신을 용서하며 배운 진정한 용기에 대해 풀어내는 에어리얼 실크

용기를 낸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뜻인지 자기 용서를 통해 배울 수 있다.

SSAF's NOTE

공중 곡예사, 베로니카 블레어의 에어리얼 실크 공연이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음을 자신의 작업에 녹여낸다.



35

10/3 14:00, 17:30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10/4 13:30, 17:30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30분

공모 | 미국

베로니카 블레어

15년의 공연 및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 공중 곡예사인 '베로니카 블레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가로서 아크로바틱 경력을 쌓기 시작해 17세에 첫 전문 공연을 펼쳤다. 현재 Celebrity Cruises의 공중 곡예 디렉터이자 샌프란시스코 서커스 센터의 샌프란시스코 청년 서커스 공연단 수석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STAFF & CAST

Performer_ Veronica Blair



숨, 자장가¹²

Breath of Lullaby

36

퍼포먼스/사전에악공연

*14세 이상 관람 가능

삶에 지친 그대, 그대 안의 어린아이를 토닥여주는 자장가의 시간

자장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들었던 노래. 잘 부르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흥얼흥얼 불러주는 자장가의 소리에 세상은 갑자기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하곤 했다. 이곳에 초대된 관객은 해먹에 누워 햇빛과 바람, 그리고 그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더불어 들려오는 자장가를 온 감각을 열어 듣는다. 중요한 것은 자장가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 보는 '빈'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SSAF's NOTE

가장 처음의 노래, 자장가로 삶에 지친 사람들을 토닥이는 장소특정형 보이스 퍼포먼스다. 관객들은 해먹에 누워 햇볕과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추억을 떠올리거나 소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예술공작단이 함께한다.



37

10/4 18:00 ©서울시립미술관 옥상(세마 휴)
10/5, 6 15:30, 18:00 ©서울시립미술관 옥상(세마 휴)
35분



공모 | 한국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목소리를 주된 재료로 공연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소리재료를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창작한 작품으로 관객과 공명한다. 특히 사회적, 심리적 억압 속 원초적인 육성의 힘에 주목해왔으며 공연뿐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도 목소리가 지닌 치유력을 사람들과 나누어오고 있다. 주요작으로는 <도시소리동굴> <보이스 퍼포먼스독> <여기, 지금>이 있다.

STAFF & CAST

작/연출_김진영 | 조연출_한윤미 | 출연_김진영, 한윤미, 김진술, 김나라 | 기획_안창희
시민예술공작단_김건하, 서유경, 여진우, 한기현



거리극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절정에서 추락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사내. 그의 환영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타인에 대한 절절한 목마름, 감춰진 로맨스와 열망들까지. 그러나 우리는 한 인간의 서정과 자유가 사회와 공권력의 비인간적 폭력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긴 비탈길을 오르는 그에게서 시지푸스의 신화가 지금, 여기, 이 시대 우리들의 초상과 겹쳐진다.

SSAF's NOTE

노숙자를 통해 사회를 고발하는 거리극이다. 비탈길 위에 앉아 시작부터 끝까지 관람해야 작품이 전달하는 희노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다.



공모 | 한국

비주얼씨어터 꽃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로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이 창단했다.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거리와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만들고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 살롱 거리극축제, 스페인 피라타레가 축제 등 유럽 최대의 거리극 축제들에 연이어 초청되어 한국의 거리예술을 알려왔다.

STAFF & CAST

창작/연출_ 이철성 | 출연_ 이철성, 서상현, 김준봉, 박상현 | 미술/조연출_ 하소정 | 음악_ 이정훈 | 음향_ 문소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9 거리예술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서커스

이 줄은 나를 태우고 또 태우기도 하죠

우리는 마치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의 줄을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떨어지면 자신을 자책하며 그 줄에 다시 오르지만, 떨어짐은 계속된다. 줄타기와 같은 일상의 관계 맺기, 그리고 관계 맺기와 같은 일상적인 줄타기. 그것들의 반복. 마치 삶의 몸부림과 닮아있는 그 지점에서 나를 불태워 날려 없애고 내 몸을 줄에 태워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때, 진짜 줄타기는 시작된다.

SSAF's NOTE

줄 위에 자신과 자신의 삶을 태우는 남자의 자전적 이야기다. 예술가를 매일 태우고 있는 줄 위에서 자신의 삶이 적힌 축문을 태우며 추락과 상승, 만남과 이별, 삶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커스다.



© 2019 서울서커스연구소(태움) [서커스 키마레]

BONGn JOULE
서커스창작집단봉앤줄

초청 | 한국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서커스 기예인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안재현이 창단했다. '봉앤줄'은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서커스 기예와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실이지만 상징적 존재들이 혼재된 시공간인 '헤테로토피아'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나갈 것이다.

STAFF & CAST

연출/배우_ 안재현 | 라이트DJ_ 신장환 | 피아노(MR)_ 문용
무대감독_ 남기현 | 영상_ 김민선 | 기획_ 이은경



© 2019 서울서커스연구소(태움) [서커스 키마레]

설치/전시

우리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다양한 틈이 존재한다. 서로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틈들은 때로는 다양성을 만들고, 때로는 차별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의 공간으로서 서울의 모습과 틈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서울광장에서 진행한다. 서로 마주 보며 벽의 구멍(틈)을 실로 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 사이의 '다름'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SSAF's NOTE

태피스트리(색실을 짜넣은 직물)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이와 틈을 메꾸는 시민 참여형 설치 작품이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이슈가 부딪치는 서울의 '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인 서울광장에서 '틈'을 채워 나간다.



초청 | 한국

서해영

전통적인 조각의 관념적이고 결과물중심의 작업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의 조각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한 여성이자 조각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전통적인 장르와 매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이다.

STAFF & CAST

작가_ 서해영 | 직조 기술 도움_ 임지영, 한영덕

사진 작업 도움_ 김아주, 김연선, 박서정, 박주영, 유진실, 최서진, 최서희, Greety, 허성희, 황서현 | 현장 설치 도움_ 이인승, 정진욱



서커스

곡예사의 공중그네와 음악가의 연주가 만들어내는 소리와 빛의 서커스

말, 몸, 경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음악가와 곡예사의 소리, 그 소리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공중그네 퍼포먼스다. 인생, 사랑, 오해와 시간의 흐름에 관해 이야기한다.

SSAF's NOTE

공중그네 동작이 만들어내는 인상적인 장면과 함께 얽혀있는 경계선을 해체하며 말, 소리, 몸의 경계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공모 | 프랑스

씨르크 보스트 // 르 빠사제

5명의 예술가들이 결성한 공중예술 단체로 그네를 타며 꿈꾸고 싶다는 열망과 공중에서의 실험을 이어나가고자 탄생했다. 그들만의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동작들을 만들어내고 여백의 공간을 잘 이용하여 감정표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STAFF & CAST

Acrobat_ Sara Sandqvist | Musician_ Nicolas Forge | Director_ Nicolas Ramon



퍼포먼스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

개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지역 사회와 공공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기적, 참여적인 작품이다. 예술가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공공 공간에 거주한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청중에게 의존하고 지역공동체와 문화 단체는 개인적인 소망을 공유된 공간으로 가져오며 그녀와 함께 동행한다. 앞에 놓인 수백 개의 작은 칠판은 초대된 관객이 메시지를 남기는 곳으로 관객들의 경험이 만들어낸 여러 의견들이 조각을 이루어 하나의 토론장이 된다.

SSAF's NOTE

1인 예술가가 24시간동안 공공의 장소에 머물면서 관객과 지역 공동체를 만나며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이 공공의 장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와 마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24h

초청 | 스페인

아다 빌라로

'존재, 마음, 공동체'는 '아다 빌라로'의 작품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들이다. 그녀의 공연은 존재와 침묵을 기반으로 하며 공공장소를 집회와 만남의 장소로서 재확인 한다. 그녀는 다양한 지역 사회, 대중 및 예술가 간의 대화의 중심에 지역주민들을 두고 그들을 조명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 공동체가 반영하고, 공유하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 포럼을 만든다.

STAFF & CAST

Creator/Director/Performance_ Ada Viláró | Production, Stage Management_ Alonso Lobato
Co-produced by_ Festival Escena Poblenou, Festival Itineràncies



퍼포먼스/이동형

우주에서 온 듯한 복장과 몽환적인 사운드, 낮선 거리로의 초대!

미래지향적이며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대형 버블, 배우들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원형 구체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호흡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머리, 손가락, 가슴 등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조명과 유행하는 듯한 움직임, 환상적인 음악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관객을 초대하며 거리를 낮선 공간으로 만든다.

SSAF's NOTE

일상의 거리가 새롭게 느껴진다. 대형 버블 속 4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몽환적인 음악과 함께 이동하다 보면 우주에 온 듯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공모 | 프랑스+헝가리

아스트로볼스

공연예술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관객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사로잡는다. 이들의 목표는 다른 이들의 개념, 아이디어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상력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STAFF & CAST

Performer_ Timea Illés, Barbara Ivanics, Timea Laza, Nicolas Vitale | **Stage Manager**_ Jean-Michel Raynal
Technician_ Jean-Loup Manassero | **Choreographer**_ Timea Laza
Productions_ JIMYPROD



설치/이동형 거리극

**움직이지 않는 몸, 생각하지 않는 사고,
무감각의 도심을 깨우는 마네킹의 향연**

〈생동감〉은 청계천 일대, 시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마네킹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며 시민들의 순간을 기록하는 〈생동감 : installation〉작업과 청계천 일대 그리고 광장에서 배우들의 몸짓과 마네킹이 함께 그려가는 〈생동감 : 이동형 거리극〉으로 나누어진다. 도시를 배경으로 마네킹과 배우들의 해프닝 행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며, 도심과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멈춰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SSAF's NOTE

현대인을 닮은 마네킹들이 무감각한 도심을 깨우는 전시 & 이동형 거리극이다. 청계천 일대에 전시된 마네킹은 낯선 풍경을 만들어 낸다. 이동형 거리극이 시작되면 마네킹을 통한 역설적인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공모 | 한국

아이모멘트

신체극, 현대무용, 전통연희의 배경을 가진 예술가가 모여 출발한 단체다.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시도하며 일상 속 기억들과 동시대의 이슈들이 오버제와 몸짓을 통해 다시금 환기되는 것을 지향한다. 주요작으로 〈GO BACK : 돌아가다〉 〈철 공〉 등이 있다.

STAFF & CAST

연출 노제현 | 출연 남재영, 정지은, 박용호, 노제현
음향 김태민 | 무대감독 신재욱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8 전문기양성과정 거리예술NEXT 창작 작품



DMZ, 깨진 욕망들의 틈을 찾아

인간이 떠나고 남은 아름다운 자연,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자연에게 격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립관광은 지금까지 안보관광으로 소비되어 왔던 DMZ 지역을 다크투어리즘의 형식으로 재해석한다. DMZ지역과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의 도시 지역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전쟁의 상흔과 전후 분단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안타까운 장소를 순례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 '전쟁'과 '비극'이라는 두 가지 대립 개념의 틈을 찾아 DMZ와 인근 군부대 도시로 여행을 떠난다.

SSAF's NOTE

사전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DMZ에서의 투어까지 10시간 동안 일정이 이어지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하루 동안 상승 OP, 재인폭포, 유엔군 화장터, 몽키하우스 등이 있는 전후 형성된 군부대 도시를 여행하면서 전쟁 속 가려진 존재들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어반아트

도시의 고유한 특징과 일상적 삶을 소재로 공연, 디자인, 전시 등을 제작/기획하는 한편, 일상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기억하도록 지역 기반의 공정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문화예술단체다.

대립관광

'대립'을 주제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기획자들이 모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대립요소를 발견하고 여행을 통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AFF & CAST

제작_이승혁 | 아트디렉터_천근성 | 프로그래머_허은영 | 공연_성상식 | 출연_김준형 | 일러스트_김지하, 이국
사진/영상_이희항 | 사운드_유병서



만남의 장소²¹

Meeting Point

54

거리무용

운명과 우연,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순간에 펼쳐지는 거리무용

같은 브라질 태생이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태어난 두 사람. '물웅덩이'를 가로 질러 8,000km를 돌아, 지구 반대편에서 처음 만나고 나서야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작품 〈만남의 장소〉는 우리가 만나는 장소, 우리가 건너야 하는 '물웅덩이'와 그러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SSAF's NOTE

힙합과 브레이크 댄스를 접목한 현대무용 기반의 공연이다. 기다림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균형을 맞춰가며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던 순간을 춤으로 재현한다.



55

10/3, 5 14:00 ㉠청계천로 모전교
10/4 14:30 ㉡서울광장 중앙잔디(SEOUL U 분수대 광장)
15분

초청 | 스페인

에르자

2004년 댄서이자 안무가인 Asier Zabaleta(Ezkio, Gipuzkoa 1972)가 창단했다. 다양한 예술 분야가 현대 무용을 통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간과 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가지고 무대와 공공장소를 위한 작품으로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STAFF & CAST

Director_ Asier Zabaleta | Dancer_ Thiago Luiz Almeida, Caio Henrique de Souza
Choreographer_ Asier Zabaleta(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dancers) | Music_ Bosques de mi mente.

Supported by



“전통×현대무용” 흥 없는 사람들이여 우리와 함께 흥! 해보자!

어쩔 수 없이 멀어져만 가는 한국전통의 기운에 다시 “열”(fever)올려 보고자 제작되었다. 전통의 재해석을 뛰어넘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흥”을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만의 춤으로 선사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거침없는 열과 기운을 불어넣고, 과감한 시도와 함께 춤과 음악 그리고 패션에서까지 고전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한”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SSAF's NOTE

타악 라이브와 미디(midi)음악으로 사물놀이의 흥을 재현하며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을 전통의 흔적을 찾아내는 현대무용이다. 무용수들의 몸짓에서 느껴지는 리듬을 통해 전통을 이해하고, 함께 '흥'할 수 있는 무대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춤의 장르나 개념에서 벗어나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몸과 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한 무용 단체다. ‘몸’을 통해 음악과 춤을 표현하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추구하며 ‘본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언제나 미지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대무용이 일반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독특한 음악적 해석과 개성 있는 움직임의 화합을 통한 안무를 시도하고 있다.

STAFF & CAST

안무 및 연출_김보람 | 무용수_김보람, 장경민, 신재희, 진다은, 이혜상, 최경훈, 차규화, 김현호
소리_권승희 | 연주_김시율 | 음악_최혜원 | 의상_해보디자인, 한송씨, 김하나 | 기획_류현지

청소협찬



불의 정원²³

Fire Garden

58

설치/퍼포먼스

불은 소재 이상의 배우다

〈불의 정원〉은 공연과 전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스킷치는 사람들과 찾아온 관객은 위협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서고 싶은 청계천 다리 위 불과 조우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불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처음의 흥분은 점차 몰입과 집중을 가져오며, 숙연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울림을 가져오는 시간이 된다.

SSAF's NOTE

불꽃들이 연기하듯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와 서정적인 전시 형태가 함께 진행된다. 다리 위의 불과 마주하며, 때로는 불의 화려함에 매료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적인 몰입의 순간을 함께 하게 된다.



59 10/3~5 19:00, 20:00, 21:00 퍼포먼스 8분 ㉠청계천로 장통교
10/3~5 19:30, 20:30, 21:30 전시 20분 ㉠청계천로 장통교



공모 | 한국

예술불꽃 화(花,火)랑

불과 불꽃으로 공연을 하는 불꽃연출 단체다.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하며 새로운 형식의 불꽃공연을 통해 불,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 장르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TAFF & CAST

제작_곽창석 | 연출_고지욱 | 기술/운영_김태운, 임재형 | 기획_이은경



시민의 역사 24

People's tower by Olivier Grossetête

60

설치/전시

시민의 두 손으로 '역사'를 세우는 집단 건축 프로젝트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시키는 것만큼이나 집단 건축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인 〈시민의 역사〉는 서로를 이어주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토피아는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의 도시 공간을 탐구하며 건축물의 상징성에 대한 고찰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공유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정치적 프로젝트가 된다.

SSAF's NOTE

잠시 틈이 생긴 우리의 역사(歷史-驛舍)를 시민의 손으로 다시 잇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종이상자와 테이프 그리고 시민 참여만으로 서울광장에 구 서울역과 평양역을 세우는 집단 건축의 경험을 공유한다. 광장에 세워진 '역사'는 우리에게 대한 기록이자 지금은 닿을 수 없는 두 역의 모습을 의미한다.



61

10/3, 4 11:00 설치 8시간 ©서울광장

10/5 11:00 전시 9시간 ©서울광장

10/6 11:00 전시 6시간, 16:00 해체 2시간 ©서울광장

초청 | 프랑스

올리비에 그로스페뜨

2003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종이상자로 만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선보였다. 2017년 말에는 5개 대륙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과 함께 거의 200개의 다른 건축물을 만들어냈다. 그가 만들어낸 건축적이면서 참여적인 이 프로젝트는 한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인간적이고 예술적인 모험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 거대하고 굉장한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해당 도시의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크레인이나 기계 없이 오직 종이상자와 테이프로만 지어 나간다.

STAFF & CAST

Artist_ Olivier Grossetête | Technical Manager_ Lionel Puddu | Builder_ Emiie Larrue with 시민예술공작단



아이 서울 유, 데이 서울 미²⁵

I SEOUL U, THEY SEOUL ME



거리극/아동형



너와 나의 서울, 우리를 둘러싼 그 밖의 세계와 만나는 관객 참여형 산책 연극

서울시의 슬로건 '아이 서울 유'의 패러디, '데이 서울 미'는 서울시청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대한 탐구와 함께 원형의 광장, 그 안과 밖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를 펼친다. 서울의 파노라마를 지나 대기업의 빌딩들 사이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주변을 떠도는 거리예술가, 서울의 풍경 속에서 바라보기도 외면하기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관객은 비로소 한 명의 서울 시민이자 공연의 인물로서 이 연극을 완성한다. 서울 시청 안과 밖을 관객들과 함께 걸어보면서 너와 나의 서울, 나를 둘러싼 타인들의 세계를 발견하는 유쾌한 산책 연극이다.

SSAF's NOTE

실제 서울 시청에서 일하는 시민 정원사, 시청 투어 가이드 등 일상의 인물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한다. 밀접한 거리에서 연극을 체험하고 싶은 소규모 관객을 위한 공연으로, 선착순 20명으로 진행된다.



63

10/5, 6 14:00, 17:00 @서울도서관 옥상

*회당 선착순 20명 관람가능

60분



초청 | 한국

원의 안과 밖

'원의 안과 밖'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안과 밖, 극장과 거리의 안과 밖, 우리 마음의 안과 밖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새로운 작품마다 현장에서 발견하는 일상의 실존 인물을 공연 안으로 데려와 실제와 연극 사이의 경계, 동시에 물리적 공간으로서 장소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연극성에 대해 탐구한다. 점점 공연예술과 생활 속의 일반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작품으로 창작 세계를 확장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 서울, 정치적 공간, 거리축제, 광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여 서울 시청으로 그 시선을 옮긴다.

STAFF & CAST

만드는 사람들 원지영, 채민, 김지우, 한재호, 변승록, 정대진, 이민하, 김동환, 김문석, 이희숙, 전수민, 김문옥, 전용규, 서동현, 김현우, 조희영, 안선우, 이옥순, 최영우, 박휘원, 김현정, 문다연 외 시민 연극인



허공 위의 나의 집²⁶

My Home in the Air



65

10/3~6 16:00 ©서울광장
120분

퍼포먼스/이동형

초청 | 한국

나의 집은 거짓말처럼 유한하고, 아름다우며, 허무합니다.

집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심리적 공간 등을 반영하며, 안정성과 보호를 상징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한계성을 내포한 경계의 상징이다. 일반적으로 한 곳에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장소가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소가 되어 허공 위를 떠다닌다. 무지개빛깔의 허공 위의 집은 비눗방울처럼 아름답지만 가볍고 허무하게 느껴진다.

SSAF's NOTE

하늘 위로 집을 띄워 서울 거리 곳곳을 유영하는 퍼포먼스다. 관객과 함께 걸으며 혹은 우연히 만나며 집이 갖는 정체성과 의미,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유지수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예술가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혹은 무언가에 대한 이미지나 관념으로 경계를 만들고 지우면서 우리의 의식과 신념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의 가벼움과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다양한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사회적 무게가 담긴 질문들로 시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STAFF & CAST
출연_ 유지수



거리극/아동형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자격으로

인간은 언어를 갖고 문명을 이루면서 산업화를 가져왔다. 오랜 시간 이 과정을 통해 자연과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모해왔다. 현재 인간의 삶 속 편의를 위한 선택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 걸쳐 이기적인 모습을 곳곳에서 양산하고 있다. 인간장수는 그동안 우리 인간의 문제적인 모습을 인간(인형)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SSAF's NOTE

다양한 동물 인형과 실제 크기와 비슷한 인간 인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권리로 자연과 동물을 대하는지 묻는 거리극이다. 동물을 사고팔 수 있다면 인간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실제 거리와 가게를 오가며 질문한다.



초청 | 한국

조음기관

인형, 오브제, 기획, 설치, 무대, 배우, 광대, 전통, 무용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단체이다. 사전적 의미로의 조음기관은 소리 내어 말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인체기관을 뜻하며, 서로 다른 기관의 연결된 움직임이 발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작업은 하나의 본질적인 소리를 향한 탐구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감탄사, 언어의 관절', '기존의 인형들', '인간장수'가 있다.

STAFF & CAST

연출_ 이지형 | 출연_ 김대기, 아누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8 전문가양성과정 거리예술NEXT 창작 작품



인간장수 적합성테스트



#돈을무료로드립니다²⁸

#MoneyForFree

68

퍼포먼스



낚시줄 끝에 달린 지폐로 돈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거리 퍼포먼스

노르웨이 출신 아티스트인 존 피셔만의 사회문제를 다룬 퍼포먼스다. 존의 출현은 SNS계정(@moneyxfree)을 통해서만 공지된다. #돈을무료로드립니다(#MoneyForeFree)에 참여하는 발언자들은 관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돈을 송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SSAF's NOTE

서울도서관 위에서 낚시줄을 아래로 드리운다. 끝에는 지폐가 달려있다. 리얼리티쇼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게임은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현재 거리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두 배우가 함께한다.



69

10/3, 4 17:30 @서울도서관 외벽
10/5, 6 13:00 @서울도서관 외벽
60분



초청 | 스페인

존 피셔맨

'존 피셔맨'은 노르웨이의 예술가다(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STAFF & CAST

Author John Fisherman

공동작업(With the collaboration) 김승연(Seungeon Kim), 신문영(Moonyoung Shin)



거리무용/이동형

과거와 오늘의 풍경을 오가는 도심 이동형 거리무용

급속한 개발과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많은 것이 남아있는 현재에 산업화 시대를 불러온다. 근대의 지표가 된 도시화와 획일화는 1920년대의 무용에 반영되어, 칼군무 형태의 미적 형식을 갖는다. 유니폼을 입은 무용수들은 집단적 존재를 상징하며, 열과 행을 통해 선보이는 안무는 단순해 보여도 나름의 규칙이 숨어 있다.

SSAF's NOTE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행과 열을 맞춰 움직이는 8명의 무용수. 관객들은 이들과 함께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도시가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을 발견한다.



초청 | 오스트리아

컴퍼니 윌리 도너

1999년 안무가 Willi Dorner가 창단했다.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 통찰력, 그리고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며 프로젝트를 제작한다. 그의 작업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과학자 및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들어진다.

STAFF & CAST

Concept/Choreography _ Willi Dorner | **Performer** _ Britt Kamper, Hugo Le Brigand, Emily Mézières, Christelle Nazarin, Raquel Odena, Stève Paulet, Esther Steinkogler, Luan de Lima da Silva | **Costumes, Probs** _ Katharina Heistingner | **Costumes/Props Assistant** _ Alba Marie Rastl | **Production** _ Roma Janus | **Production Assistant** _ Emanuela Panucci | **Photo** _ Lisa Rastl

Co-Production _ Provinciaal Domein Dommelhof/Neerpelt (BE), La Strada, Graz (A), Lieux publics, Centre national de création, Marseille (F), Festspielhaus St. Pölten, St. pölten (A) | **Support** _ La Briqueterie, Vitry - sur - Seine (F), Paris.

Funded by _ The Cultural Department of the City of Vienna. | **Production** _ IN SITU network(META project)

Supported by _ European Commission(DGEAC-Culture programme), Austrian Embassy Seoul, Federal Chancellery Austria.



거리극/이동형

첼로 연주자와 광대가 함께 만들어내는 무성 영화 같은 이동형 공연

제2차 세계대전 시대 속에서 순수한 아이와 할아버지의 관점으로 난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감각과 배경이 되는 거리, 함께하는 관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공연을 풀어낸다.

SSAF's NOTE

휠체어를 탄 첼로 연주자와 광대가 거리를 이동하며 경쾌한 동작들을 선보이는 이동형 거리극이다. 첼로 연주가 배우의 감정, 행동을 대변하고, 배우가 들고 다니는 분필로 거리에 자막을 써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거리를 채워나간다.



10/3, 4 13:00 ©역수궁 들담길
10/3, 4 17:00 ©무교로
10/5, 6 14:30 ©무교로
60분

공모 | 스페인

컴퍼니 파우 팔라우스

2014년, 거리 예술가 Pep Vila, Dudu Arnalot, Adrian Schwarzstein 등과 거리예술 훈련을 기반으로 만든 광대, 제스처 퍼포먼스 중심의 단체다. 평등과 NO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현대적 광대 언어와 즉흥적인 대중과의 만남으로 보여준다. 광대극을 기본으로 하여 전 세계의 거리와 광장에서 그들만의 예술을 선보였다.

STAFF & CAST

Idea_ Cia. Pau Palaus | **Direction_** Pau Palaus and Adrian Schwarzstein | **Clown_** Pau Palaus | **Musician_** Manu Barandiaran | **Music_** Manu Barandiaran | **Dress_** Cia. Pau Palaus | **Scenography_** Cia. Pau Palaus | **Distribution_** Maria Soler - Trompez Cirkus Management
Supported by_ Sea Change Arts, Intitut Ramon Llull and Fira Trapezi Reus



서커스/이동형

초청 | 프랑스

공간에 따라 반응하고, 변주되는 본능적인 저글링

거리를 이동하며 진행되는 즉흥형 공연이다. 이동하는 공간마다 다양한 형태로 공연이 진행된다. 같은 동작과 같은 표현, 같은 장소들이 아닌 매번 새롭게 구체적이며 독특한 공간에 있는 장소를 찾아내 공명하려 한다.

SSAF's NOTE

단 한 번만 가능한 공연이 있다. 춤, 연기, 서커스, 라이브 음악을 결합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며 공연이 진행되는 공간과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완성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커스, 무용, 아크로바트, 파쿠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한다.



컬렉티브 프로토콜

무용, 연기, 저글링, 라이브 음악을 결합해 작업하는 프랑스 단체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객과 즉흥적인 프로토콜(Protocole)을 공유해왔다. 실재와 허구, 보이지 않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공 공간을 점령하며 매번 새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STAFF & CAST

Collectif : Johan Swartvagher, Paul Cretin, Thomas Dequidt, Valentina Santori, Sylvain Pascal, Caroline Sotta, Alexandre Verbiese
한국배우(Korean Performers) : 강한구(Hangu, Kang), 곡유하(Youha, Kwak), 김래영(Raeyung, Kim), 김진부(Jinbu, Kim), 서다니엘(Daniel, Sirh), 이기흥(Giheung, Lee)

Supported by_ French Institute, Centre-Val de Loire Region in France



수직구조 속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세 남자의 이야기

수직 사회 속에서의 경쟁이 아닌 상생, 수직이 아닌 수평,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협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 수직구조에서 서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공연을 통해 상생의 가치이자, ‘수직’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한다.

SSAF's NOTE

〈수직〉은 수직 구조에 저항하는 세 사람의 차이니즈 폴 공연이다. 위태로운 수직 상태에서 중력을 거스르기도, 때로는 중력을 이용하여 서로를 지지하며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동을 통해 새로운 ‘수직’의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포스

융합과 연결을 모태로 예술 고유의 가치와 현대의 무한한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조화된 공연 형태를 선보인다. 예술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는 융합·뉴 폼 아트 창작 그룹이다.

STAFF & CAST

프로듀서, 이영호 | 작/연출/출연, 이영호, 김재섭, 김선혁



서커스/이동형

세 남자의 SIGNAL을 위한 간절한 몸부림

<시그널>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피리소리에 이끌려 강에 뛰어드는 쥐 떼들의 모습, 피리소리에 이끌려 사라져 버린 아이들의 모습이 트랜드에 예민하고 유행을 따라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듯하다. 우리는 수많은 신호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알아야한다. 시그널은 여러 신호 속에서 자각을 잃은 집단행위에 대한 이야기이며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SSAF's NOTE

<시그널>은 피리 소리에 따르는 쥐 떼를 이끌고 마을을 떠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유행을 좇으며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에게 신호를 보낸다. 무용, 음악, 서커스적인 요소가 한데 모인 이 공연은 실내와 실외를 오고가는 이동형 공연이다.



공모 | 한국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관객이 부정적인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원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전하는 단체다.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춤, 연기, 사운드, 빛, 구조물, 서커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흡수, 변형,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극장 및 실내의 특정 공간을 활용한 여러 유형의 공연을 선보인다.

STAFF & CAST

안무/연출_ 정성태 | 퍼포머_ 정성택, 김선혁, 정성태 | 음악감독/연주_ 장일호 | 무대/기술_ 박성용
무대제작_ 토멘터, 김영호, 최서우 | 무대디자인_ 오태훈 | 홍보물디자인_ 신현아 | 매니저_ 심주영

*서울무용센터 2018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



*기구/기술 후원_ 프로젝트 날다



협력

Cooperation Program

만석중놀이 Monk Mansuk Nori(Play)

왼손이 Lefty

옵니버스 인형극장 Omnibus Puppet Theater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 The Great Noripan: Clown of Today

조선서커스 백희-다이나믹-K Dynamic-K

나는 섬이다 I am an Island

모두스 비벤디 Modus Vivendi

지금이면: 裏面 The Other Side

킵 온 브레이킹 Keep on Breakin'

서울 곳곳을 또 다른 매력으로 물들일
연희, 비보잉, 서커스 등
축제의 틈을 메우고 일상의 변화를 불러올
서울문화재단 사업의 공연들을 소개한다

부산탈춤부터 연희서커스까지,
색다른 연희를 만날 수 있는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사업**
거리예술 분야 전문가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이론-작품연구-창작)
과정을 통해 창작한 공연을 선보이는 **2019 거리예술 빅스트**

교육-연구-창작 등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서커스의 새로운 시도와 탐색 **2019 서커스 펌핑업**

명불허전 대한민국 비보이의 향연! 화려한 기술에
그들만의 서사를 녹여낸 **서울시 대표 B-boy단**

만석종놀이³⁴

Monk Mansuk Nori(Play)

82

전통연희

중아 중아 도사(apostate) 중아!

청색 사자와 호랑이의 역동적인 춤사위로 공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신장수와 원승이가 등장하여 놀이판의 재미를 증폭시킨다. 경건할 것 같은 생불(生佛) 만석중(萬石僧)과 취발이가 등장하며 풍자와 긴장감이 감도는 놀이판을 조성한다. 출연자와 관객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놀이판은 난장(亂場)을 형성하고 긴장을 풀어가며 삶과 연계시키는 마무리를 한다.



83

10/3 18:00 ©서울신문사 앞

10/4 13:00 ©서울신문사 앞

40분



협력 | 한국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1958년 한국봉산가면극연구회를 설립하여 1967년 6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제17호로 지정된 봉산탈춤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72회의 정기공연을 개최하는 등 전수교육과 공연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STAFF & CAST

연출_김종엽

배우_정용일, 박상문, 김종해, 김은주, 박원묵, 정윤식, 이은순, 조주현, 장계운, 윤원중, 최정운, 최민기, 이정동, 김하연

악사_김광준, 윤석만, 김용하, 조애라 | 스태프_김상빈(음향), 최수미(진행)



전통연희

원손이의 쌈지할머니 구하기!

지네사또에게 잡힌 쌈지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집채만 한 호랑이를 찾아가는 외톨이 원손이의 모험 이야기다. 천천히 말하는 아이, 느릿느릿 천천히 걷는 아이, 파란 아이, 빨간 아이, 노란 아이, 오른손 잘 사용하는 아이, 왼손이 편한 아이……. 생김새, 성격, 행동하는 모습이 다 다른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름과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작된 재미나고 신명난 '탈놀이극'이다.



협력 | 한국

극단 꼭두광대

아이들이 자라야 할 세상(이야기, 그림, 음악세상)을 창작 판타지 탈놀이극과 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한국 유일의 탈연희 전문 극단으로 2019년부터 증평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STAFF & CAST

연출_ 서상규
작_ 김지영 | 배우_ 김지영, 김성연, 장철기, 조규선, 연수연, 이재웅
악사_ 김준모, 이상진, 이석중 | 스태프_ 이병호, 오승관



옴니버스 인형극장³⁶

Omnibus Puppet Theater

86

전통연희

“Shall we dance”

수년전 집나간 마누라를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박첨지, 관객석에서 마누라가 있나 찾아보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인형 사물놀이”

인형이 춤을 춘다고? 인형이 사물놀이를 연주한다고?! 연주자의 얼굴 그대로 깎아 만든 인형들이 팽과리, 장구, 징, 북을 연주한다. 우리 모두 신명나게 놀아보자!

“안녕, 박첨지”

인형극장의 큰 어른인 박첨지는 젊은 날 극장의 간판스타로 전국 방방곡곡에 명성을 떨쳤다. 이제는 늙어 더 이상 줄을 탈 수 없고, 버나를 돌릴 힘도 남아있지 않다. 결국 박첨지는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깊은 잠이 든다.



87

10/5 13:30 ㉔서울시립미술관 프락

10/6 14:00 ㉔서울시립미술관 프락

40분

연희극장
음마가쟁

협력 | 한국

연희공방 음마가쟁

소리를 어루만져 음악을 만든다는 뜻의 ‘음마(音摩)’와 대장간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인 ‘가쟁’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기존 전통인형의 움직임과 표현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형제작 방식과 조종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을 창작하여 전통인형극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STAFF & CAST

연출/인형제작/디자인_음대진 | 작곡/음악감독_박미향

배우/악사_이주원(박첨지), 김지훈(곡두, 징), 김성대(산반이, 장구), 서정호(팽과리), 장진규(북), 권도윤(머리, 태평소), 박미향(건반)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³⁷

The Great Noripan: Clown of Today

전통연희

일석이조의 천수잔치가 열리는 날, 이 시대 최고의 청춘광대들의 대.단.한 놀이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6대 농악 가락과 남사당 놀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놀이판이 벌어진다. 강릉, 평택, 구례 잔수, 이리, 임실필봉, 진주 삼천포의 특색 있는 가락과 줄타기, 버나, 탈춤, 풍물 등의 다양한 놀이를 선보인다. 이들 청춘광대의 폭발적 에너지를 느껴보자!



89

10/5 13:00, 17:00 ©서울신문사 앞

50분



협력 | 한국

예인집단 아라한

연희에 쓰이는 풍물, 무속, 소리, 기예 등 다양한 우리 문화 유산을 깊게 연구 및 복원하여 이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예를 중심으로 한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 농악위주로 창작한 <가락프로젝트_농악편>,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한 <죽음, 김소월과 마주하다> 등의 레퍼토리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STAFF & CAST

연출_민현기 | 작가_신은수 | 기획_성유림

출연_이창훈, 김성현, 이정동, 박희순, 조갑동, 김민기, 이학인, 조만희, 임시대, 강성주, 이다훈



조선서커스 백희-다이나믹-K³⁸

Dynamic-K

전통연희

이것이 백희기에(百戲伎藝) 조선 서커스다!

하늘 높이 길게 솟은 솟대 위에 올라 아슬아슬 쌍줄을 타며,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할 화려한 기예가 펼쳐진다. 버나놀이, 죽방울놀이, 열두발놀이의 체기백희(몸으로 하는 기술과 놀이)와 오방사자춤이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조선시대 백희기에(百戲伎藝)가 전부 모였다. 이것이 유일한 조선 서커스다!



91

10/3 14:30 ©서울신문사 앞

10/4 19:30 ©서울신문사 앞

40분



협력 | 한국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2018년 전통예술의 복원과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은 2013년 솟대쟁이패(Sotdaejaengi Nori)를 복원하고 2017년 쌍줄백이를 시연한 후 솟대쟁이패 공연에 치중하고 있다.

STAFF & CAST

연출_ 양근수

배우_ 김재현, 안중범, 권교휘, 권혁주, 김동윤, 김혜동, 윤길중, 윤현준, 이동준, 이진규, 김원섭, 백재우, 정민혁, 고광현, 안종혁, 최보근, 한용섭, 이훈, 배용기, 강봉현

스테프_ 서강석, 김지수, 오인갑



나는 섬이다³⁹

I am an Island

92

퍼포먼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 교육사업 '2019 거리예술 넥스트' 결과발표

프랑스 거리예술 전문단체인 이씨-멤즈가 2019 거리예술 넥스트에 선정된 여섯 명의 한국 예술가들과 함께 마르세유와 서울에 대해 리서치한 결과를 공유한다. 마르세유에서 리서치를 통해 만들어 낸 프로토콜(규칙)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만나 여섯 개의 섬으로 변모한 작품 '나는 섬이다(Je suis une île)'에서 그들의 이야기, '여기'에 대한 공통된 감정, 그리고 다섯 개의 유일한 섬으로의 여행에 초대한다.



93

10/3 14:30 ㉔서울시립미술관 프락
10/4 12:00 ㉔서울시립미술관 프락
50분



협력 | 한국

2019 거리예술 넥스트 & 이씨-멤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거리예술 교육사업 '거리예술 넥스트'의 2019년 선정자 5명과 1993년 창단 이후 프랑스 그르노블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씨-멤즈'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단체로, 마르세유와 서울을 오가며 함께 작업했다.

STAFF & CAST

워크숍 기획 및 진행_ 이씨-멤즈

플레이티브 구성원_ 프레데릭 아르코스, 짐 개경, 이블린 룡상, 알린 마끌레, 마농 캐릴

워크숍(서울) 진행_ 차고 보이에, 고린 퐁티에, 사무엘 히보

워크숍 "나는 섬이다" 참여예술가(2019 거리예술 넥스트 선정자)_ 궤다원, 권순국, 김영신, 김준환, 안은주

코디네이터 및 통역(마르세유)_ 정현지 | 통역 및 번역(한국)_ 홍성혜 | 프로듀서/스태프_ 김재용

후원 Isère



서커스/이동형/사전예약공연

한 사람의 관객과 수행하는 서커스, 이것도 서커스일까?

눈을 감은 한 사람과 그를 안내하는 또 한 사람이 서울 한복판을 걷는다. 산책도 순례도 아닌, 어쩌면 이들은 떠다니는 유령처럼 도시를 유영한다. 잠시, 이들 간에는 불안정한 공존이 형성된다. '견해가 서로 다른 이들 사이의 잠정적인 협약'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에서 착안했다. 새로운 서커스를 고민하는 다섯 명의 퍼포머와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 다섯 명의 관객을 위한 실험 공연이다.



협력 | 한국

2019 서커스 펌핑업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컨템포러리 서커스 유망 예술가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작품제작의 전 과정을 심화 지원하는 '서커스 펌핑업(Circus Pumping 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오디션 을 거쳐 강은나, 서남재, 엄예은, 원태윤, 임재현이 최종 참가자로 선발되었다.

STAFF & CAST

제작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출연 강은나, 서남재, 엄예은, 원태윤, 임재현 | 연출 류장현 | 기예코치/조연출 김재섭 | 드라마투르그 엄혜원
기술감독 유성희 | 기술조감독 김지연 | 무대디자인 박상봉 | 기록 원지영 | 프로듀서 임고은



지금이면: 裏面⁴¹

The Other Side

96

비보잉

바닥을 구르고, 도는 우리 삶의 이면

“안 아파?” “얼마 벌어?” “언제까지 할건데?” “TV나오나?” “그게 춤이야?” 우리가 받는 슬한 질문들. 우리는 왜 춤을 추는 걸까? 잦은 부상, 금전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수 많은 문제를 안고도 우리는 계속 춤을 춘다. 때론 너무 오랫동안 춤을 춰서 그런지 이러한 생각조차 멈춰버릴 때가 있다. 그 생각이 멈춘 다음에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음악에 몸을 맡기며 바닥을 차고 구르고 돌고 날아다니는, 한없이 화려하기만 했던 비보잉의 이면. 그 속에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가 있다.



97

10/3, 4 18:30 @청계광장
40분



협력 | 한국

갬블러크루

서울시 대표 B-boy단 '갬블러 크루'는 세계 5대 대회 중 가장 큰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2회 우승 등 18년 동안 세계 50여 개 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수준의 비보잉 댄서들로 구성된 팀이다. 현재는 비보잉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을 창작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STAFF & CAST

기획 | 이준혁 | 운영 | 김지환, 오영호

연출/재구성 | 박지훈, 장수용, 홍성식

공동창작/출연 | 박지훈, 장수용, 홍성식, 박인수, 김음혁, 윤준호, 최찬배, 김예리, 이규진



킵 온 브레이크인 ⁴²

Keep on Breakin'

98

비보잉

실 새 없이 펼쳐지는 비보잉의 향연!

〈킵 온 브레이크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활발하게 활동한 엠비크루의 퍼포먼스가 집약된 공연이다. 독일에서 열린 '배틀 오브 더 이어 (Battle of the year)'에서 선보였던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엠비크루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루틴과 강한 동작을 결합해 정통 비보잉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99

10/5, 6 18:30 @청계광장
30분



협력 | 한국

엠비크루

서울시 대표 B-boy단 '엠비크루(M.B. Crew)'의 M.B.는 마룻바닥의 약자로 비보이의 활동 무대와 그 위에서 펼쳐질 열정을 상징한다. 엠비크루는 2002년 결성 이래 프랑스, 일본 대만 등 각국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대표 B-boy단으로 활동하면서 차별화된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STAFF & CAST

연출/기획 엠비크루

출연 박재형, 강일진, 강재성, 유권욱, 박문성, 최창협, 이성준, 황인경, 전성현, 박민혁





A puppet performance featuring a small, yellow, bird-like character on a stage. A person in a black hat is visible behind the puppet, and another person is partially visible in the foreground.





숨겨진 도시가 세종대로에 펼쳐지고, 신나는 놀이터가 서울광장에 세워진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터와 체험, 기부 프로그램은 모두의 예술적 상상력을
 가득 채운다. 예술로 놀고, 예술로 즐기는 축제에서 색다른 경험에 빠져보자!

도시 안 놀이터 - PIPE CITY⁴³ PIPE CITY

10/6 12:00-18:00 ©세종대로

일상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한 숨겨진 도시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수도꼭지를 돌리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물 내림 버튼을 누르면 오물이
 씻겨 내려간다. 이 모든 편리함은 어디서부터 올까? 우리 발밑에 켜켜이
 자리 잡은 수많은 배관은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가스 등 생활을 위한
 많은 것을 실어 나른다. 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지만 미
 처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진 도시의 모습을 우리 모두의 상상으로 함께 만
 들어 본다.

상시체험

파이프 도시만들기, 테이프 아트

도시 속 숨겨져 있던 파이프들이
 도로 위에 나타났다!



STAFF & CAST
 공간디자인_박은혜 | 디자인어시스턴트_손지희, 신나경 | 구조물제작_정규현

서울광장은 '실 틈'이다!

축제를 알아가는 공간이자 일상 속 숨을 얻는 공간,
그리고 몸으로 거리예술을 마주하는 공간인 서울광장에서 축제의 틈을 만나보자!



원형놀이터 디자인 김은영

연희 놀이터⁴⁴ YEONHEE Playground

10/3, 4 13:00-17:20 ©서울광장 원형놀이터

빌딩 숲 사이, 스카음악에 맞춰 길쌈 한 판! PLAY 연희!

스카음악과 전통장단의 절묘한 조화가 있는 유희스카(연희컴퍼니 유희+킹스턴 루디스카)의 공연에 함께하는 대동놀이와 퍼레이드까지! 탈, 사자춤, 줄타기, 던지기, 돌리기에 관심있다면? 연희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보자!

- 대동놀이 (길쌈+퍼레이드+유희스카) 13:00, 16:50 시작(1일 2회, 30분)
- 상시체험 (열두발상모+버나+줄타기) 13:00~17:20 상시 운영
- 접수체험 (탈춤+발탈+사자춤) 13:30, 14:20, 15:10, 16:00 시작(1일 4회, 40분)

*서울광장 원형 놀이터에서 12:00부터 선착순 현장접수

STAFF & CAST
감독_임영호 | 공간디자이너_손정민 | 출연_유희스카, 알티밋, 연희극단 모꼬지



서커스 예술놀이터⁴⁵ Circus Arts Playground

10/5, 6 13:00-18:00 ©서울광장 원형놀이터

*만 5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

눈이 아닌 몸, 관람이 아닌 체험으로 서커스를 즐겨보자!

차이니스 폴, 에어리얼 실크, 디아블로, 저글링 공...서커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은 서커스 예술놀이터가 펼쳐진다. 서커스를 체험하고 숨겨진 재능까지 발굴해줄 시민 대상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 서커스 예술놀이터로 놀러오세요!

10/5 자유체험 13:00, 15:00
원정대 14:00, 16:00

10/6 자유체험 13:00, 14:00
원정대 15:00, 16:00

*양일 17:00-18:00 자유체험은 현장 참여 가능

*서울광장 원형 놀이터에서 12:00부터 선착순 현장접수

STAFF & CAST
대표강사_강승우



서울광장은 '실 틈'이다!

축제를 알아가는 공간이자 일상 속 숨을 얻는 공간,
그리고 몸으로 거리예술을 마주하는 공간인 서울광장에서 축제의 틈을 만나보자!

예술후원캠페인⁴⁶ Art Donation Campaign

10/3~6 12:00-18:00 ©서울광장

예술로 빛나는 기부!

예술기부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즐거움 <예술후원캠페인>에 참여해보자!

시민이 만드는 예술작품은 예술후원을 위한 빛이 되어
서울을 아름답게 밝힌다.

STAFF & CAST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길동이랑 놀자 Let's Play with Gilldong

10/3~5 12:00-18:00 축제장 곳곳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꽃, 길동이와 함께 놀자!

관객들이 축제의 기억을 다양한 방법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
길동이와 만들어가는 체험형 놀이프로그램이다. 일상의 공간을 놀이터로
바꾸고, 길동이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축제 곳곳에서 펼쳐진다.

#시민데이터

길동이가 묻고 시민이 답하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시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된 길동이 프로그램으로
'나에게 싸-프란 ㅇㅇㅇ 이다',
'싸-프 이행시' 등 시민의 생각을 듣고 수집하며 축제의 의미를 찾는다!

#드롭박스

박스의 '틈'을 찾아서!
커다란 박스에 공이 빠져나갈만한 작은 틈이 있다.
제한 시간 안에 지정된 색깔의 공을 떨어뜨리면 성공!

#볼다트

들쭉날쭉 파이프에 공을 던진다.
공을 넣어 정해진 점수를 넘으면 성공!



전문가 등록 Professional Register

현장접수_ 10/3~6 11:00-21:00 아티스트 라운지

축제를 방문한 국내·외 거리예술 전문가들과 아티스트에게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거리예술 분야 실무자들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네트워킹 파티 Networking Party

10/5 22:00-24:00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거리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참여 예술가들과 축제 및 관련기관 실무자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거리예술 축제 전반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거듭나고자 한다.



아티스트 라운지 Artist Lounge

10/3~6 11:00-21:00 서울광장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관계자, 전문가들을 위해 조성된 네트워킹 공간이다. 등록된 전문가들은 축제의 주요 장소인 서울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라운지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축제 및 전문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Meet Together at SSAF & SSACC

10/7 13:00-18:0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해외 거리예술 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이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작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네트워크 자리를 통해 국내 단체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자원활동가 Volunteers

공연팀

해외공연지원

강서연 고동주 고예인 길유정 김다미 김보현 김시준 김예림 김재형 김태희 김하영 김효진
노우진 박서현 박세희 박지나 변재혁 서진경 손수강 양예림 우지아쿤 이경림 이명아
이승현(8794) 이승현(8263) 이여민 이은지 이지원 이진모 장효진 정성현 정소이 정수애
조민정 채민주 최소영 추재연 퍼흐 데 빠즈 아-니스 가브리엘라 홀현우 황다은

전문가프로그램

고유진 김희영 나가연 남윤주 박소영 소만준 송예림 이미영 이선재 한아영

기획팀

놀이프로그램

경은비 권은빈 김규형 김나영 김리원 김소담 김원주 김지영 김찬우 김현섭 노수민 류정희
박소이 박정은 박현배 박화신 배두리 신수민 신혜민 안소연 안형준 오수민 이보윤 이재민
이정민 이준규 이지원 전하림 정예송 정혜윤 조수빈 조승연 조효린 한창희 한혜원 황지선

홍보팀

아나운서

구연우 김민지 김유린 문유빈 오다현 이나영 장연재 장정연 하성환 황유정

홍보

강예진 강지혜 광영성 김영서 김재은 김현정 김효선 김효정 나혜연 백희주 신다희 신영진
신은비 신혜지 안유진 안혜원 양성훈 오현정 유상희 유예빈 윤수진 윤진주 이규리 이미경
이상은 이익재 이재린 이지영 이채린 장인영 정철한 정효은 조서현 조윤미 조현희 최영환
한인진 허 정

사진/영상

김경민 김희준 민소영 박주영 이은서 이준호 차민경 한강희 강신만 강은비 길태윤 김동민
박지혜 박한주 변지선 안성봉 안용준 우수연 유영승 임형준 조서영 조은임 최호경 황지영

운영팀

길동이 기획단

곽윤호 기 윤 김수연 김시는 김유정 김진원 김혜원 김희수 류현조 문아영 박동영 박예진
양서희 오유정 이경빈 이수형 이승현 이지홍 최지영 함초름

공연현장운영

강구선 강규빈 강상목 강용구 강정화 강현준 고지혜 공은별 곽한솔 권가연 권혜지 기도영
길예진 김나연 김나영 김남형 김다연 김다은 김동주 김민영 김민수 김민지 김소영 김수연
김승하 김시윤 김아영 김연정 김영빈 김원태 김유빈 김윤진 김정민 김주현 김지민 김지원
김지윤(6510) 김지윤(7299) 김차은 김진미 나희원 남지영 류가연 문소희 문원기 박근혜
박명철 박미연 박상은 박세린 박소슬 박수인 박순민 박은서 박정은 박하은(3814)
박하은(5418) 백은서 변재윤 서재의 서지은 성민재 성민지 소현서 손도연 손재영 손희주
송동진 송보민 송진영 신동혁 신소희 신은혜 심민지 심아련 안소현 양 알렉산데르 양권민
양소현 양정윤 어종원 엄채린 오은지 오지수 오지원 왕이현 위미림 유헤리 윤선경 윤수빈
윤정민 윤지수 윤태웅 윤학로 윤현지 이경서 이다은 이다현(5223) 이다현(6062) 이단비
이명석 이선아 이소연 이수민 이수아 이수연(5798) 이수연(0056) 이예슬 이유림 이유정
이유지 이유진(1576) 이유진(0247) 이종환 이준상 이지민 이지선 이지영 이지우 이지현
이채원 이혜미 이혜민 이훈영 임정서 장민주 장원준 전다은 전유진 정미현 정우성 정유진
정윤희 정은비 정지원 정혜정 조경은 조선미 조연영 조정해 조현아 지형준 채민경 채서영
최수진 최예은 최은명 하윤정 홍유태 홍희주 황교은 황원영 황유진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9 Staff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
예술창작본부장 임미혜
예술축제팀 서명구 팀장
 김영규(축제운영 총괄), 김해나(축제홍보 및 협력), 황진수(축제공연)
 우상욱, 류한영, 장국영, 한성경(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영호(대표 비보이단)
 서금술, 김윤영(연희 육성지원)
 박은희, 박태준(축제지원 및 평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추진단

예술감독 윤종연, 조동희
제작감독 조형제
공연 조영선 총괄PD, 추수연, 김경연, 문수빈
기획홍보 송지연 총괄PD, 한지연, 이나래, 박현선, 임진영, 임진희
운영 이영호, 김민경, 조아름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김신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
 김정아 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김형민 신촌거리예술축제 감독
 이만희 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홍종현 서울예술축제지원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 코오롱 FnC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축제진흥팀 김현아 팀장, 김유빈, 장경진, 김민준, 국보람

(주)씨포스트

축제운영 안성진, 윤정훈, 이병인, 노지람, 이슬아
사이트 운영 박지훈, 이시정, 박찬희, 조승희, 송진우, 홍지훈, 문성현
무대기술 성준혁, 이지란, 소예리, 박말순, 김고은, 김현호,
 서지연, 성동현, 최유진, 이정수

한강청년코디네이터

현장지원 김은비, 박주경, 이루강, 임예랑, 백우석, 신희선, 유정현, 박승미
 이세희, 이한나, 김현우, 황수빈, 이고은, 한지희, 정서린

SSAF 2019 길동이의 싸프쇼

연출/구성
박현선

기획/구성

김재음, 백희주, 김효정,
조서연, 강지혜, 신준비,
김효선, 유예빈, 이재란,
신다희, 조은미, 신혜지,
오현정, 안해원

리포터

이나영, 김민지,
오다현, 구연우,
문유빈, 허성환,
창정연

촬영/편집

한강희, 김경민,
차민경, 이은서,
민소영, 김희준,
이준호

아이모먼트 | 비주얼씨어터 몸mom소리
 금실복합예술소 |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비주얼씨어터 꽃 | 댄스프로젝트 에게로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 길동이가 만나 본 국내 공모단체 인터뷰!

YOUTUBE와 팟빵에서 싸프쇼를 검색하세요.

길동이, 틈을 바라보다 - 길동이가 틈이 만든 틈갤러리

- | 언제 10. 3. (목) - 10. 6. (일) 4일동안
- | 어디서 서울광장 MD숍 내부에서
- | 무엇을 길동이들이 찍은 틈 사진들을 전시합니다!

2019 예술놀이축제

예술로 놀장

2019년 10월 5일(토) - 6일(일)

11:00-19:00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vietjetair.com

베트남 여행을 위한 최고의 선택, 비엣젯항공

인천/부산/대구에서 베트남 주요도시로 출발합니다

- 호치민
- 하노이
- 하이퐁
- 씨엠립
- 다낭
- 나트랑
- 푸꾸옥
- 양곤



예약 문의
02-319-4560

작품번호

축제는 힘이 넘친다.

함께 어울려 웃고 환호하며 만든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거리예술은 광장과 거리, 마을, 생활의 공간을 무대로 바꾸고

관객과 배우, 일상과 예술 사이의 벽을 허문다.

같이 만들고, 걷고, 여행하는 일들이 예술이 되며

거리 위에서 모두 배우가 되어 축제의 한 장면으로 남는다.

무심히 지나던 장소가 새로워지고 본 적 없는 풍경이 서울의 가을을 채운다.

오랜 시간 나눌 기억과 공간이 지금 · 여기,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에서 펼쳐진다.

공연

- ①지평의 지평
- ②구호의 역사 1945-2015
- ③묘지로 향하다
- ④워크맨 인 서울
- ⑤연극 같은 내 인생
- ⑥사자·who
- ⑦불안정
- ⑧저항
- ⑨친밀한 공간
- ⑩고소공포증
- ⑪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 ⑫숨, 자장가
- ⑬들, 구르다
- ⑭태움
- ⑮우리들 사이
- ⑯올림 속의 침묵

- ⑰공공의 24시간
- ⑱아스트로볼스
- ⑲생동감
- ⑳대립관광
- ㉑만남의 장소
- ㉒피버
- ㉓불의 정원
- ㉔시민의 역사
- ㉕아이 서울 유, 데이 서울 미
- ㉖허공 위의 나의 집
- ㉗인간장수
- ㉘#돈을무료로드립니다
- ㉙에브리원
- ㉚발자국
- ㉛원 샷
- ㉜수직
- ㉝시그널

협력

- ㉞만석중놀이
- ㉟원손이
- ㊱옵니버스 인형극장
- ㊲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
- ㊳조선서커스 백화-다이나믹-K
- ㊴나는 섬이다
- ㊵모두스 비벤디
- ㊶지금이면 : 裏面
- ㊷킵 온 브레이크인

놀이

- ㊸도시 안 놀이터 -PIPE CITY
- ㊹연희 놀이터
- ㊺서커스 예술놀이터
- ㊻예술후원캠페인



서울 거리예술 축제 안내도

SSAF

- 🗨 작품번호
- A** 청계광장
- B** 서울도시건축전시관
- C** 세종대로
- D** 무교로
- E** 서울광장
- F** 서울시립미술관
- G** 회현역



하이서울페스티벌 2003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2003. 5. 24-25



하이서울페스티벌 2004
새롭게!
재밋게!
신나게!
2004. 5. 1-9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
서울의 몸짓,
세계의 몸짓
2010. 10. 1-10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봄을 부르는
몸짓, 볼짓
2011. 5. 5-10



하이서울페스티벌 2005
서울마니아 &
그린
2005. 4. 30-5. 5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서울마니아!
서울, 서울in
2006. 5. 4-7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
2012. 10. 1-7



하이서울페스티벌 2013
길에서
놀자
2013. 10. 2-6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
서울
역사의 재현
2007. 4. 27-5. 6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봄축제
서울의 봄,
궁에서 피다
2008. 5. 4-11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길에서
놀자
2014. 10. 1-5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
길에서
놀자
2015. 10. 1-4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서울,
여름에 빠지다
2008. 8. 9-17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2008. 10. 3-25



서울거리예술축제 2016
서울도시
공간의 재발견
2016. 9. 28-10. 2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유쾌한
위로
2017. 10. 5-10. 8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겨울축제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
2008. 12. 19-1. 18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서울의 봄,
희망으로 피다
2009. 5. 2-10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따로,
또 같이
2018. 10. 4-10. 7